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 법정으로

주민들, 한전에 승인 내준 군산시 상대 '계획 인가 취소' 소송

철탑방식의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해온 군산지역 일부 주민들이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군산시 대야와 옥구, 회현, 미성 등 4개 읍면동 지역 주민 73명은 지난 3일 한전에 실시계획을 승인해준 군산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사업 시행자

인 한전이 우리가 요구하는 지중화 노선과 비용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처럼 훔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중화 비용 절반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한전 측 주장 역시, 전기사업법에 의해 기존 철탑을 지중화할 경우에만 해당할 뿐 선로를 신설할 때는 한전이 100%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군산시의 실시 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주장했다.

주민들은 철저한 법적 검토 없이 한전 측에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해준 군산시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법정에서 시사비비를 거리겠다는 태도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한전에 대한 송전 철탑 설치 실시계획 인가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들 주민은 지난달 초

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송전선로 공사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군산 임파전력소에서 산북동 옛 해양경찰서 인근의 새만금변전소(30.331km)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92개)과 선로를 지상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건강 피해를 우려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한전은 사업비가 막대하게 듣다는 이유로 지상 철탑방식을 고수해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즉각 조사하라"

고창 어민들 한수원 상경투쟁

영광원전 5, 6호기 온배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피해조사를 시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미온적인 태도에 고창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광원전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표재금) 소속 고창군 상하면 일대 지역 어민 200여명은 최근 서울 한수원 본사 앞에서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피해어민들은 구시포 어항 및 해수욕장 2차 피해조사 즉각 시행과 대법원 판결 구획, 해면 어업자 등 피해권리자 등의 이행 등을 촉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영광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어민들은 지난해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합의서에 의거한 구시포 어항 및 해수욕장 2차 피해조사 즉각 시행과 대법원 판결 구획, 해면 어업자 등 피해권리자 등의 이행 등을 촉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영광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포 일대의 조사계획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차 피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상경 시위를 벌였다.

표재금 위원장은 "5, 6호기 가동으로 인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현재까지도 어민들을 위해 피해조사는커녕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수원은 당초 합의서에 내용대로 피해조사와 함께 구획면허, 해수면허 등 부관어업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 어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영광원전 가동 자체가 불법임을 명백히 밝히고 불법에 따른 원전가동 중지를 위한 법적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화훼농가 어려움 나눠요"

전북대 학생들이 3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마련한 '장미꽃 나누기' 행사에서 장미를 고르고 있다. 전북대는 이날 모금된 성금을 장미 생산농가에 전달하고, 아버이날과 스승의 날, 성년의 날에도 장미 팔아주기 행사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제 지평선산단 용수공사 부실 논란

익산 오산면~김제 백산면 16.6km 구간

터파기 폭 줄여 시공, 바닷모래 투입도

익산시 오산면~김제시 백산면 지역은 4900만원을 들여 방법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억5800만원을 투입해 방법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이미 설치된 방법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우범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경찰서, 지구대, 순찰차량 등과 함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한다.

당초 도면상에는 상단이 바깥으로

더 깊이도록(16도 41분) 설계돼 있었

지만 편의 공정을 위해 수직 터파기

를 강행해 상단폭이 35cm나 부족했다.

4900만원을 들여 방법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억5800만원을 투입해 방법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이미 설치된 방법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우범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경찰서, 지구대, 순찰차량 등과 함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한다.

당초 도면상에는 상단이 바깥으로

더 깊이도록(16도 41분) 설계돼 있었

지만 편의 공정을 위해 수직 터파기

를 강행해 상단폭이 35cm나 부족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익산시, 여성 안전도시 관제센터 내달 준공

익산시가 여성친화형 안전도시를 위해 총 22억700만원을 투입해 오는 6월말까지 40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모현동 교통정보센터내에 통합 관제센터를 준공한다.

시는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고 어린이 대상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20개 초등학교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에 선정된 20개소를 포함해 총 40개소에 10억

원을 들여 방법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억5800만원을 투입해 방법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이미 설치된 방법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우범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경찰서, 지구대, 순찰차량 등과 함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한다.

당초 도면상에는 상단이 바깥으로

더 깊이도록(16도 41분) 설계돼 있었

지만 편의 공정을 위해 수직 터파기

를 강행해 상단폭이 35cm나 부족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양선을 넘어 반대차선까지 질주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원 승인을 득하지 않고 현장자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방규정에 어긋난다"며 "토사의 자립과 붕괴 예방을 위해 터파기 안식각은 설계대로 필히 공사를 해야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부실공사가 확인됐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곳 공사현장을 지나는 많은 차량들은 다짐도 안 된 보조기증(골재)이 덮여진 도로를 피하기 위해 중

앙선을 넘어 반대차선까지 질주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원 승인을 득하지 않고 현장자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방규정에 어긋난다"며 "토사의 자립과 붕괴 예방을 위해 터파기 안식각은 설계대로 필히 공사를 해야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공사 업자와 구두를 통해 예산절감을 위해 상단 터파기 폭은 줄여 시공하기로 했다"며 "추후 설계변경 후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금당 공인중개사

■ 김정아 이하

• 원룸부지, 생활주체 적합 범위내로 로터리에서 무진중학교

• 가는 길 2주 주거지 256평 김정 5억선 매도 3억9천

• 교회건물 구내정(이미트) 옛 대지 71 건평 239.4층 건물

• 노인요양시설포함 운행 1억 7300만원 매도 5억4천

• 대인동 소방도로로너 5층상가건물 대지 67 건평 210 평시

• 지가 2억8천 1층도로 사용 4억6천만원

• 유통 모빌 대지 133 평 306 요양시설적합 6억천

• 유동동 땅 1632평 창고 350평 공시지가 14억2천 매도21억

• 교회부지 나방동 484평 대출수익 매도 8억9천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872 공시지가 53억2천

•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회순 이강면 소재지 국도접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장적합

• 대출5천6백 공시지가에 매도 8700만원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1억천

• 금남로4가구 구주원행 4거리 대지 494 건물은 301평과

680평 2동 있음 공시지가 87억5천 매도 35억

• 광주여일 원룸 대지108 건평833 김정11억8천 매도 1억7500

• 학군등 4층 상가주거지 대지 68 건평 145 평 매도 15억3천

• 주유동 회순읍 땅 1118평 공시지가 14억8천 매도15억천

• 동물동 아파트 예정지역 계획도로 코너 대지 133 평 1억천

• 특대주택점 부근 대지 90평 4층 건물 공시지가 5억 매도 4억5천

■ 매도·교환

• 회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250평 경관좋은 1억7500

• 남동읍 교원리 버스도로접 211평 주택과공장 19억8백

• 산수동 노남면선 2층주거지 220평 사찰·빌미전합 2억7천

• 하남동 도천동 자연녹지 506평 공장적합 3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배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 서구 쌍촌동 3층상가 대지 55평 건평 100평

김정기 2억 6천만 최저가 1억8천만

• 광산구 비아동 3층상가 대지 73평 건평 131평

농가시설 김정기 1억5천만 최저가 1억4천만

• 나주시 금천면 과수원 토지 1,530평

김정기 1억8천 최저가 1억3천만

• 서구 벽진동 대지 143평 건평 57평

김정기 1억4천만 최저가 9천9백만

• 회순군 능주면 대지 135평 건평 56평

2층주택 최저가 6천5백만

• 곡성군 곡성읍 2층상가주택 대지31평

건평62평 김정기 1억3천만 최저가 8천9백만

• 서구 화정동 3층 대지63평 건평105평

김정기 3억 2천만 최저가 2억 3천만

• 서구 풍암동 3층다기구 대지 61평

건평 112평 김정기 3억 3천만 최저가 2억 3천만

광주 서구 마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주전남지사별 유지빌딩 501